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미 증시,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관세 불확실성 속 상승폭 축소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9일(목) 미 증시는 견조한 AI 수요를 입증한 엔비디아 호실적, 미 연방 법원에서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등에 힘입어 장 초반 상승 출발했으나, 이후 미국 GDP 내 소비 지출 둔화, 항소심 판결 전까지 관세 일시 복원 결정 영향이 불확실성 가중시키며 장 후반 상승폭 일부 반납하며 마감(다우 +0.28%, S&P500 +0.40%, 나스닥 +0.39%).

전일 미국의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달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 취지의 판결을 내림. 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요구하는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에 해당하지 않고, 트럼프의 관세 명령은 의회의 권한을 넘는 위법이라는 점이 금번 관세 무효 판결의 주된 근거. 다만, 이후에 해당 판결에 있어서 효력 정지를 요청한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항소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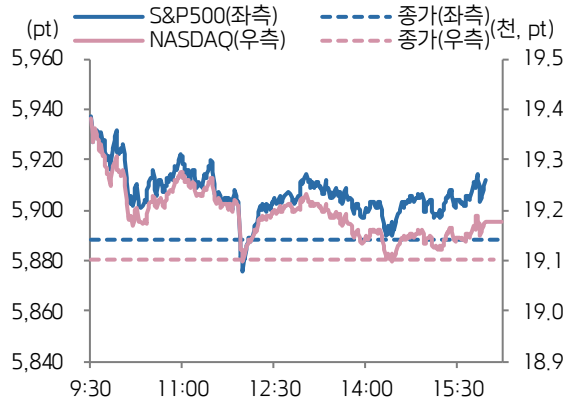
상호 관세 무효 판결 → 백악관 항소 → 관세 일시 복원 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겪으며 주식시장은 이를 또 다른 형태로 생성된 관세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는 양상. 이와 별개로 무역확장법 301조에 근거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지속적으로 부과 가능. 또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무역적자 보정을 위해 15% 범위 내에서 150일씩 관세 부과를 할 권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도 향후 관세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 결국, 현 시점에서는 그간 상정해왔던 기존의 관세 경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두되 향후 항소심 판결 결과,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 양상이 어떤식으로 흘러가지를 지켜봐야 할 필요.

한편, 전일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 증감률은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 -0.2% 기록,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0.3%) 대비 0.1%p 상향. 다만, 개인소비 증가율은 속보치 1.8% → 1.2%, 민간지출 증가율도 속보치 3.0% → 2.5%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은 미국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를 높일 수 있는 요인. 여기에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계속실업수당 수급자 수도 191.9만 명으로 3년 6개월 만 최고치. 미국의 경기 둔화 시그널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연준의 스탠스가 전환될 수 있을지에 주목해볼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대중국 수출규제에도 선방한 엔비디아 실적, 한국은행의 25bp 금리 인하, 미 연방 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등의 3가지 호재 속 양 지수는 상승 마감. 특히,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증시 부양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 기대감을 반영하며 증권, 지주사 등의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이 특징적 (코스피 +1.89%, 코스닥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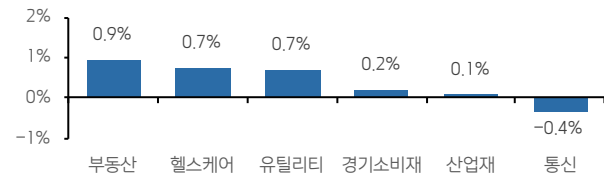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전일 급등에 따른 일부 차익실현 욕구 속 항소심 판결 전 관세 일시 복원 결정 등의 영향으로 약보합권으로 출발할 전망이다. 특히, 금번 미 법원의 판결로 인해 향후 트럼프 관세 행보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었다는 점은 기존 관세 수혜주(조선, 방산 등)의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그 외에 대외 불확실성과 별개로 국내 고유의 대선 이벤트와 연동될 수 있는 증권, 지주, 내수주는 대선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일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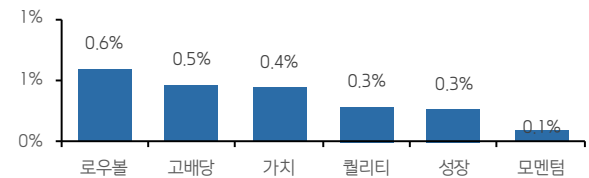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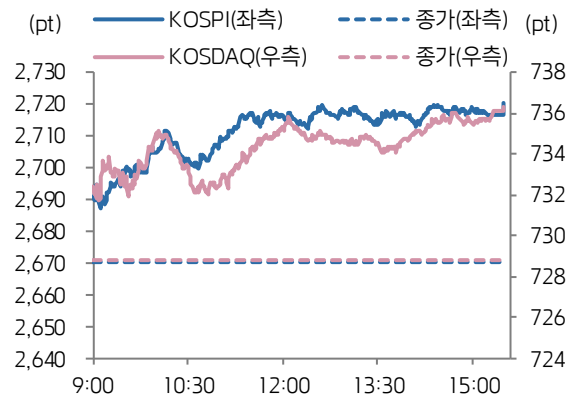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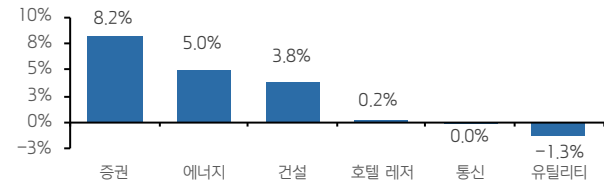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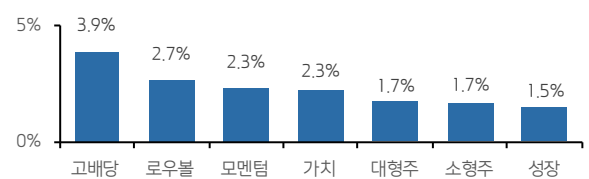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199.95	-0.23%	-19.96%	GM	48.59	+0.96%	-8.55%
마이크로소프트	458.68	+0.29%	+9.24%	일라이릴리	722.57	+0.44%	-6.05%
알파벳	171.86	-0.29%	-9.11%	월마트	97.10	-0.14%	+8.03%
메타	645.05	+0.23%	+10.27%	JP모건	264.37	+0.33%	+11.54%
아마존	205.70	+0.48%	-6.24%	엑손모빌	102.69	+0.57%	-2.8%
테슬라	358.43	+0.43%	-11.24%	세브론	137.91	+1.39%	-2.56%
엔비디아	139.19	+3.25%	+3.66%	제너럴일렉트릭	97.10	-0.1%	+8%
브로드컴	241.97	+1.06%	+4.69%	캐터필러	351.79	+0.66%	-2.2%
AMD	113.03	+0.15%	-6.42%	보잉	208.18	+3.32%	+17.62%
마이크론	96.80	+0.64%	+15.17%	넥스트에라	68.99	+2.6%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720.64	+1.89%	+13.38%	USD/KRW	1,371.10	-0.36%	-6.87%
코스피200	363.08	+1.89%	+14.24%	달러 지수	99.34	-0.54%	-8.43%
코스닥	736.29	+1.03%	+8.57%	EUR/USD	1.14	+0.69%	+9.81%
코스닥150	1,195.81	+1.08%	+5.84%	USD/CNH	7.19	-0.07%	-2.05%
S&P500	5,912.17	+0.4%	+0.52%	USD/JPY	144.21	-0.43%	-8.26%
NASDAQ	19,175.87	+0.39%	-0.7%	채권시장			
다우	42,215.73	+0.28%	-0.77%	지수	가격	DTD(bp)	YTD(bp)
VIX	19.18	-0.67%	+10.55%	국고채 3년	2.340	+3.2bp	-25.5bp
러셀2000	2,074.78	+0.34%	-6.97%	국고채 10년	2.760	+5.8bp	-11.1bp
필라. 반도체	4,860.48	+0.54%	-2.4%	미국 국채 2년	3.939	-5.1bp	-30.3bp
다우 운송	14,745.38	+0.53%	-7.24%	미국 국채 10년	4.418	-5.9bp	-15.1bp
상해종합	3,363.45	+0.7%	+0.35%	미국 국채 30년	4.916	-6bp	+13.5bp
항생 H	8,559.71	+1.37%	+17.42%	독일 국채 10년	2.508	-4.6bp	+14.1bp
인도 SENSEX	81,633.02	+0.39%	+4.47%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지수	가격	DTD(%)	YTD(%)
Eurostoxx50	5,371.10	-0.14%	+9.7%	WTI	60.94	-1.46%	-12.74%
MSCI 전세계 지수	876.37	-0.54%	+4.16%	브렌트유	64.15	-1.16%	-14.05%
MSCI DM 지수	3,845.70	-0.6%	+3.72%	금	3,343.90	+0.65%	+23.08%
MSCI EM 지수	1,163.84	-0.02%	+8.22%	은	33.42	+1.28%	+14.3%
MSCI 한국 ETF	61.80	+1.73%	+21.44%	구리	467.55	+0.68%	+16.12%
디지털화폐				BDI	1,303.00	+0.54%	+30.69%
비트코인	106,179.20	-1.08%	+13.3%	옥수수	447.00	-0.89%	-4.64%
이더리움	2,643.92	+0.34%	-20.99%	밀	534.00	+0.71%	-6.23%
				대두	1,051.75	+0.31%	+1.64%
				커피	348.40	-1.01%	+12.9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5월 29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